

박원제 / 이미영 선교사 **선교소식** 2018년 9월 29일

주 소 : L30 Knights of Columbus Barangay San Roque  
Antipolo City 1870 Philippines

전 화 : 001-63-998-532-6155(필리핀), 070-8621-2182

E-mail : palahara@hanmail.net, 카톡아이디 : palahara

**“오늘은 필리핀 내일은 세계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들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달 8월 14일 저희 모친께서 94세의 연세로 소천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요도를 못한 것이 많이 죄송했습니다, 총  
회 선교부 선교 본부장님 이하 본부에 많은 분들 그리고 지인들이 오셔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여러 동역자님들께 부고 소식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  
니다, 이젠 어머님을 다시 뵈 수 없어서 슬프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면 천국에서 다시  
뵈 수 있겠지요? **마라나타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삶이되시기를 두 손 모읍니다, 늘 저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역 소식들과 기도제목 올려드립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박원제선교사 모친 장례식>**

- **4월 17일 - 19일 동안 러보바탕가스 지역에 저희 세 교회 첫 의료 선교가 있었습니다.**  
많이 외진 곳이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귀한 분들의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고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지역 가운데 복음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들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6월 11일 - 15일 동안 필리핀 노회초청선교대회가 세부에서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울산남부노회, 마산노회, 진주노회 3개의 노회와 매칭되어 노회장님들, 노회  
선 교부 임원님들 그리고 본부장님 부부, 이사장님 부부, 이신철 교수님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필리핀 선교에 대한 보고와 전략을 위한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

니다. 앞으로 세 노회들과 필리핀 선교부가 잘 협력하여 선교의 귀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노회 초청 선교 대회 - 울산남부노회, 마산노회, 진주노회>

● 이번 여름에는 3개의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다녀갔습니다.

첫째팀 : 6월 26일 - 7월 6일 제 1 영도교회 정성은 목사님과 11명의 청년들이 저희 사역지에서 10박 11일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갔습니다.

둘째팀 : 7월 28일 - 8월 4일 저희 주 파송 교회인 거제 섬김의 교회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이호세 목사님 이종건 집사님 등 20여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저희 여러 교회 사역지와 섬김의 교회에서 개척하신 바탕가스 발리마고 교회 담장 페인트칠과 전도 집회 등 7박 8일 동안 열심히 섬기고 갔습니다.

셋째팀 : 8월 16일 - 8월 25일 마산중부교회 김성재 목사님과 청년 10명이 저희 사역지에서 9박 10일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들 단기 선교팀들은 저희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영어로 묵상을 같이 하고 운동 교제, 대학교 캠퍼스 사역, 사랑과 섬김의 기독교 학교 사역, 교회 건축 노가다, 길 보수, 노방전도, 성도들 가정 방문 기도사역 및 교회 방문 기도사역, 교회 페인트 칠, 교회 및 농구장에서 전도 집회, 바탕가스 교회 근처 바닷가 비치와 리조트에서 쉼과 안식, 마닐라 시내와 안티폴로 시내 문화 체험 등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갔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지속적인 아름다운 동역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 1 영도 교회>



<거제 섬김의 교회>



<마산중부교회>

● 솔로 사랑과 섬김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4월 23일 반송교회 조용래 목사님 그리고 주 후원 성도님인 김준배 장로님과 가족들, 저희 공동체 식구들과 라사니 교역자들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 들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공사 부분은 주일 헌금을 할 때 주일 헌금과 건축 헌금을 따로 하여 재정을 마련하여 건축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마을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한 것은 이 교회의 학생들 6명이 올해 저희 공동체에 새로운 멤버로 들어 와서

모롱 주립대학교, 열방 대학교, 시니어 하이스쿨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저희 공동체에서 잘 훈련을 받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 지은 솔룩교회>



<헌당식 특송>



<11주년 기념예배>

지난 9월 16일 주일에 새 예배당에서 1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롭게 지은 아름다운 교회를 가득 메운 가운데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회, 어른 성도들 순으로 각자 준비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내의 간증이 옛날에는 전도를 하면 온다고 하고 오지를 앉았는데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기뻐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안젤리토 전도사가 필리핀 신학대학 대학원(PTS)에 합격하여 1학년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원 2학년을 공부하고 있는 알빈 전도사는 여자친구와 가정문제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신학대학원을 잠시 그만둔 피터 전도사는 이번 2학기 때 2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하고 조우벤 전도사는 이제 3학년 마지막 학기로 논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공부 하고 있는 4명의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와 차비 등 그들의 재정을 채워 주실 것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올해 저희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에 10명의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왔습니다,** 공동체 삶을 통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작년에 들어온 아이비 자매는 이번에 전교 1등을, 잭 크리스 형제는 전교 2등, 말빈 형제는 전교 9등을 했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제롬 형제는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지금 시니어 하이스쿨 11학년, 1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필리핀과 열방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에 필요한 재정도 채워 주시도록 두 손 모아 주세요,



<새로운 멤버>



<아이비>



<말빈, 잭크리스, 제롬>



<형제 공동체 멤버들>

● “사랑과 섬김의 열방 미션” 센터 부지에 새로 지어지는 공동체 교회 1층에 우리 형제들만 옮겨서 형제 공동체가 되었고 자매들은 학교 2층에 그대로 있어 공동체가 자매공동체 형제 공동체 두 곳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루속히 공동체 교회가 완성되고 센터 부지에 공동체 숙소가 지어져 저희 가족과 자매들도 이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년에는 저희 학교 2층을 학교로 사용해야 하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공동체 숙소가 지어지는데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저희와 같이 동역하기로 오신 윤원우, 박미란 선교사님은 지금 언어 훈련기간입니다. 언어에 많은 진보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3 자녀들이 필리핀 생활을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윤 선교사님은 매주 목요일 과 금요일에 저희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캠퍼스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데 모롱 주립대학, 안티폴로 주립대학, 마리키나 기술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제자들이 일어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6월 13일은 저희 ‘사랑과 섬김의 기독교 학교’ (Love and Serve Christian School) 개학식이 있었고 14일은 개학 감사 예배를 주 후원 교회인 **울산갈릴리교회 김진석 담임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두 오신 가운데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의 진행 상황 보고와 미래 발전을 위한 귀한 모임도 가졌습니다.

작년에는 4학년까지 64명의 학생들 이었는데 올해는 한 학년이 더 올라가서 5학년까지 104명의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9월 24일에 내년 2019학년도 6학년까지 문교부 허락이 나왔습니다. 내년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전 학년이 완성됩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한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까지 완성되어가고 있고 후년에는 중등학교를 시작하려고합니다.

저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학교가 발전하고 이 학교를 통해서 필리핀을 변화 시키고 열방을 변화 시킬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일어 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공동체를 졸업한 저희 제자들인데 마음을 같이 하여 아름답게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생님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확신하고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말씀과 믿음의 터 위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개학예배>



<울산갈릴리교회 당회원과의 만남>



<새학년도 학생들>

## 가족 기도제목입니다.

1. **하림이가** 올해 대학교 4학년 졸업반입니다. 끝까지 학업을 잘 감당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또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원 교사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길을 열어 주시도록, 하림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도록.
2. **래원이는** 5월 24일 의경으로 군 입대를 하여 지금은 서울 정부청사 취사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복무동안 공부를 하고싶어 하고 자격증도 따고 싶어 하는데 환경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죄의 유혹들이 많은데 믿음으로 살며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두 손 모아주십시오.
3. **박원제 선교사가 목에 흑이 생겨** 지난 5월 수술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로 수술 없이 치료를 잘 했습니다. 지금 목의 흑은 외관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증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데 아무런 증상 없이 깨끗하게 치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원제, 이미영 선교사가 영육간의 삶을 잘 관리 하고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아보며 말씀으로 잘 먹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지상 사명에 함께 가는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박원제 이미영 선교사 드립니다.